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미국 항공시장 점유율 나란히 1위

###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APM 터미널, 러시아 최초의 수출 시스템 디지털화 포부 발표
2.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 디지털 데이터 공유 MOU 체결
3. 일본 국토교통성, TS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자 모집
4. BLG 로지스틱스, 중국 AIWAYS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

### 명사 스피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유럽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업 유치 등으로 물류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 산업인 수산업을 생산부터 가공유통의 전 과정을 혁신하겠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2020. 7. 28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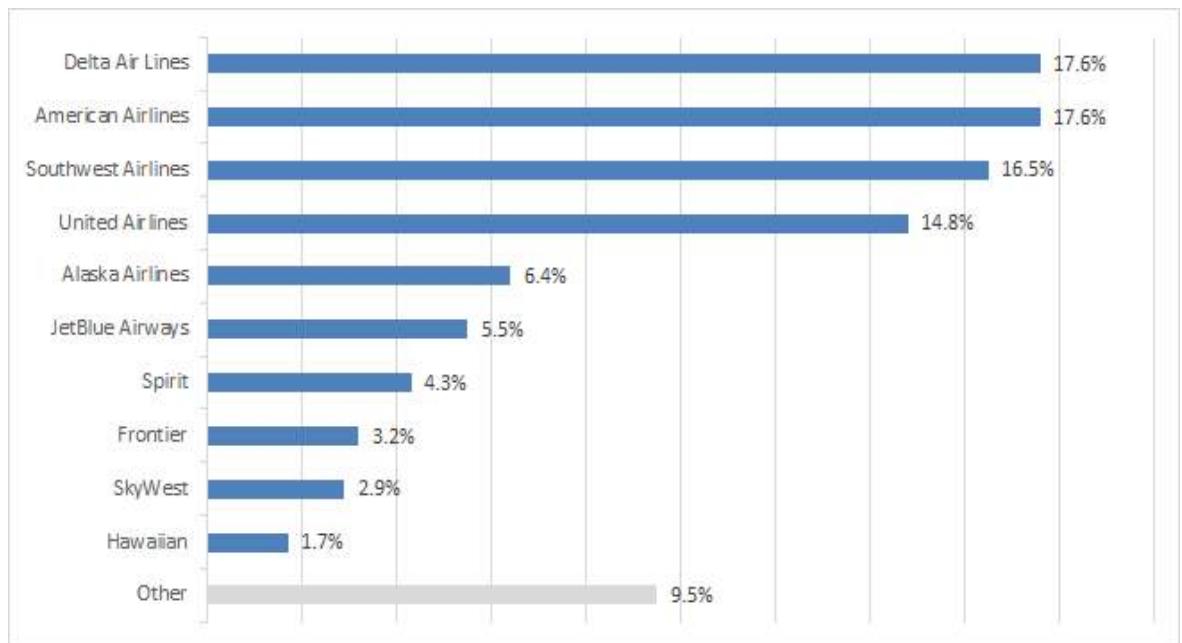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미국 항공시장 점유율 나란히 1위

항공사별 미국 내수시장 점유율 ('19. 5.~'20. 4)



자료 : www.statista.com

-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이 미국 항공운송 시장에서 점유율 17.6%를 나란히 차지하며, 동일한 점유율을 기록,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메리칸항공은 2019년 기준 매출 449억 달러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함
  - 델타항공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델타의 허브인 애틀랜타 국제공항(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은 미국 내 가장 많은 승객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사우스웨스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각각 시장 점유율 3위, 4위를 차지함
- 6위를 차지한 제트블루 항공은 JD파워(J.D. Power & Associates)가 실시한 2019년 북미 항공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의 장·단거리 운항 항공사로 선정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검색일: 2020. 08. 04)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



## APM 터미널, 러시아 최초의 수출 시스템 디지털화 포부 발표

- 지난 7월 30일 APM 터미널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FCT(First Container Terminal)가 러시아 최초로 완전 디지털 컨테이너 수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FCT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터미널로 1998년 10월 최초의 하역서비스를 수행한 이래 러시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터미널로 평가받고 있음
  - FCT는 러시아 최대 터미널 운영사인 글로벌 포트(Global Ports)를 모회사로 두고 있으며 글로벌 포트는 APM 터미널과 러시아 물류기업 Delo의 합작 회사임
  - 지난 7월 30일 APM 터미널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FCT가 러시아 최초로 완전 디지털 컨테이너 수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포워더가 주문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세관에서 디지털 문서를 발행하며 추가 승인 없이 컨테이너 적하를 수행하도록 함
  - 수출 이해관계자가 컨테이너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선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



자료: <http://www.fct.ru/en/about/>(검색일: 2020.8.3.)

- 수출을 포함한 항만물류 전반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항만물류의 경우 완전한 디지털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종이문서나 전화 등 전통적인 정보교환 방식에 의존하는 프로세스도 일부 존재함
  - 이는 정보교환 시간을 증가시키고 정확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항만물류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킴
  - 우리나라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물류 전반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www.apmterminals.com](http://www.apmterminals.com)(검색일: 2020.8.3.), [www.globalports.com](http://www.globalports.com)(검색일: 2020.8.3.), [www.fct.ru](http://www.fct.ru)(검색일: 2020.8.3.)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mailto:jseo@kmi.re.kr)



##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 디지털 데이터 공유 MOU 체결

- 7월 28일, 싱가포르해운항만청(MPA)과 로테르담항만공사는 터미널 운영사 PSA 및 블록체인 기반 물류정보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 해운정보 솔루션기업 CargoSmart사<sup>1)</sup>, 싱가포르 항만정보관리 솔루션기업인 GeTS사<sup>2)</sup>와 함께 해운·항만정보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주요 내용은 데이터 표준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양 개발 등을 통한 해운·항만 데이터 교환 효율성 향상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의 터미널운영사는 해운거래 및 항만운영 관련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MOU는 데이터 공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PI기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함
  - MPA는 성명서에서 IMO의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에 따라 항만당국이 전자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싱글윈도우를 개발해왔으며, 이번 협약의 데이터 표준 및 API 이니셔티브가 항만당국, 운영사, 해운사, 물류회사 및 정보공유 플랫폼 제공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 개별 데이터 플랫폼을 공통의 APIs로 데이터 상호 교환을 가능케하는 MPA의 'digitalOCEANS™'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을 밝힘
  - 향후 MPA는 제후사들과 함께 API 사양 설계, 테스트 등을 위한 기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이번 MOU는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의 대형 관문항에서 노력중인 데이터 공유 기회 창출에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임
  - API기반 데이터 공유는 화주의 공급망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부터 항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측면, 미래인프라 수요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joc.com](http://www.joc.com)(검색일: 2020.7.29), [www.mpa.gov.sg](http://www.mpa.gov.sg)(검색일: 2020.7.29.).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1) CargoSmart사는 해운산업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인 GSBN(Global Shipping Business Network)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기업임  
2) GeTS사는 싱가포르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기업인 크림슨로직(CrimsonLogic)의 자회사로 싱가포르항 및 PSA의 PCS시스템인 'Calista'로도 잘 알려져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 TS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자 모집

- 일본 국토교통성은 러시아철도공사와 협력하여 TS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TSR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TSR 이용 실증사업자 모집을 실시함
  - 동 실증사업의 지리적 범위는 일본에서 러시아 서측 유럽 국가로 정하고, 수송수단은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블록트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수송을 원칙으로 함
  - 이번 실증사업에서 국토교통성은 컨테이너 40ft 기준 1개당 20만엔 상한으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지난해 실증사업 결과를 수송비용, 리드타임, 수송 관련 수속, 수송환경의 질, 화물 위치 정보 취득, 컨테이너 환적/철도 하역 작업 등의 항목으로 정리 발표함
  - 수송비용은 해상수송 대비 약 1.5배 이상이 소요됨(단, 대량 수송에 따른 할인요율 적용 가능성이 있음)
  - 리드타임은 해상수송 대비 약 1/2 단축되었음
  - 수송수속은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SDS(화학물질 등 안전목록) 등은 영어와 더불어 러시아어 번역이 요구되어 추가 작업과 비용이 발생함
  - 수송환경의 질(온습도, 진동 등)은 일부 팔렛(pallet)의 파손은 발생했으나 내용물의 손상은 없었음
  - 화물 위치 정보 취득은 일본 항만에서 TSR 터미널까지는 선사 제공 웹페이지에서 정보 입수가 가능했으나, 서유럽 일부 지역의 경우 철도 운영사측에 상시 문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컨테이너 환적/철도 하역 작업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2019년 TSR 실증사업 결과 개요

물류사업자	화주	화종	구간	수송 개요	수송기간	소요 일수
Toyo Trans	Makita	전동공구 · 부품	일본 도야마 →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위험물 수송	2019.9.5.~21 (글리비체역 <sup>1)</sup> )	16
Nissin	Nisshoku Butsuryu	아크릴 폴리머 acrylic polymer	일본 고베 → 체코 라코브니크	탱크 컨테이너 수송	2019.9.15.~10.6 (브르제 돌니역 <sup>2)</sup> )	21
Nippon Express	KITO	자동차 부품, 수송부품 등	독일 함부르크 → 일본 요코하마	수입 혼재화물 수송	2019.10.23.~11.14	22
Yusen Logistics	Yamaha Motor	정밀기기	일본 나고야 → 독일 뒤스부르크	정밀기기 수송	2020.1.11.~2.4	24

자료 : [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337978.pdf](http://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337978.pdf).

주 : 1) 화주의 요구에 따른 화물을 보관한 글리비체역(폴란드)까지의 소요일수.

2) 화주의 요구에 따른 화물을 보관한 브리제 돌니역(폴란드)까지의 소요일수.

■ 참고자료 : [www.mlit.go.jp](http://www.mlit.go.jp)(검색일: 2020.7.30)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mailto:chnayoung@kmi.re.kr)





## BLG 로지스틱스, 중국 AIWAYS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

- 중국의 전기 스마트 자동차 제조업체인 AIWAYS가 유럽 시장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 독일의 자동차 전용 오토터미널 브레머하펜항(AutoTerminal Bremerhaven)을 배터리 구동 SUV의 첫 취급 항만으로 선택함
  - AIWAYS는 2017년 상하이에 설립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업체로, 2020년 8월 중국 스타트업 최초로 유럽 시장에 배터리 구동 SUV(U5모델)를 출시함
  - 오토터미널 브레머하펜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터미널 중 하나로 연간 1,300척의 차량운송 선박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210만 대의 차량을 처리하고 있음
- BLG 로지스틱스는 중국 스타트업 AIWAYS의 신형 전기차 해상운송 서비스를 왈레니우스 빌헬름센 오션(Wallenius Wilhelmsen Ocean)에 위탁하기로 함
- 이들 차량은 유럽 내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기 전까지 오토터미널 브레머하펜에 임시로 보관되며, 이 기간에 BLG 로지스틱스는 차량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통관 서비스를 담당함
- 최근 몇 년간 차량 해상 수송실적 및 항만 처리실적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물류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항만 하역 및 운송 과정에서 차량 중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중량 증가는 차량 수송 트럭 및 열차의 적재과정 및 적재량에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blg-logistics.com](http://www.blg-logistics.com)(검색일: 2020. 7. 23), [www.ti-insight.com](http://www.ti-insight.com)(검색일: 2020. 7. 28)

김은우 부연구위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mailto:hisgrace@kmi.re.kr)